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현황과 특징

강 승 복*

I. 들어가며

최근 정부가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으로 저임금근로자를 비롯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저임금근로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생계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임금근로자가 과다하게 많으면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저임금근로자는 실업과 취업상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아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들의 규모를 일정수준 이하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저임금근로자의 규모와 구성, 업종 및 직업 분포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¹⁾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연도별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kangsb@kli.re.kr).

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는 통계청에서 기존의 고용통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추가적으로 월평균 임금 등을 조사하는 자료로서 2000년 이후 매년 8월에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용, 임시, 일용직 등의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임금근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II. 저임금근로자의 현황

1. 저임금근로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저임금근로자는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의 두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절대적 개념의 분류방식은 최저생계비, 빈곤선 등 특정임금 수준 미만의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분류하는 방식이며, 상대적 개념의 분류방식은 전체 근로자의 특정 분위별 임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중위임금(median wage)의 2/3 값, 10분위값, 25분위값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²⁾

이 글에서는 현재 OECD가 저임금근로자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위임금의 2/3 값 미만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하여 보면 2004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은 1,300천원, 저임금근로자의 기준이 되는 중위임금의 2/3값은 867천원으로 나타난다.

중위임금의 2/3값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14,584천명 중 25.9%인 3,784천명으로 나타나며,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남성근로자의 12.7%인 것에 반해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44.3%에 달해 성별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표 1〉 저임금 관련 지표(2004년 8월 현재)

(단위 : 천원/월, 천명, %)

	전 체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중위임금	1,300	-	-
중위임금의 2/3값	867	-	-
전체 근로자수	14,584	8,489	6,096
저임금근로자수	3,784	1,082	2,702
저임금근로자 비율	25.9	12.7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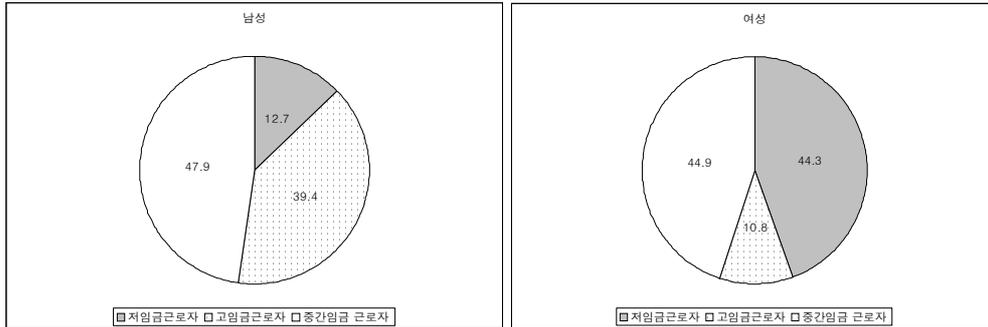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 8.

2) OECD, *Employment Outlook*, 1996.

Stephen Bazan 외 2인, *Low-wage Employment in Europe*, 1999.

[그림 1]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2004년 8월 현재)

(단위: %)



주: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2/3 미만자, 고임금근로자=중위임금*3/2 초과자로 정의.

2. 저임금근로자의 연도별 추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은 2000년 1,000천원에서 2004년 1,300천원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0천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약 8~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성비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2004년 8월 현재 41.8%로 나타나며, 연도별로 미세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 8월에 71.4%를 기록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 이후 7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2004년 8월 현재 전체 남성근로자 8,489천명 중 12.7%인 1,082천명이 저임금근로자로 분류되었으나 여성은 전체 여성근로자 6,096천명 중 44.3%인 2,702천명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남녀 모두 2000년 이후 소폭 증감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남성은 10% 초반대, 여성은 30% 후반~40% 초반대를 유지하고

<표 2> 연도별 저임금 관련 지표

(단위: 천원/월, %)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위임금	1,000	1,000	1,100	1,200	1,300
중위임금의 2/3값	667	667(0.0)	733(10.0)	800(9.1)	867(8.3)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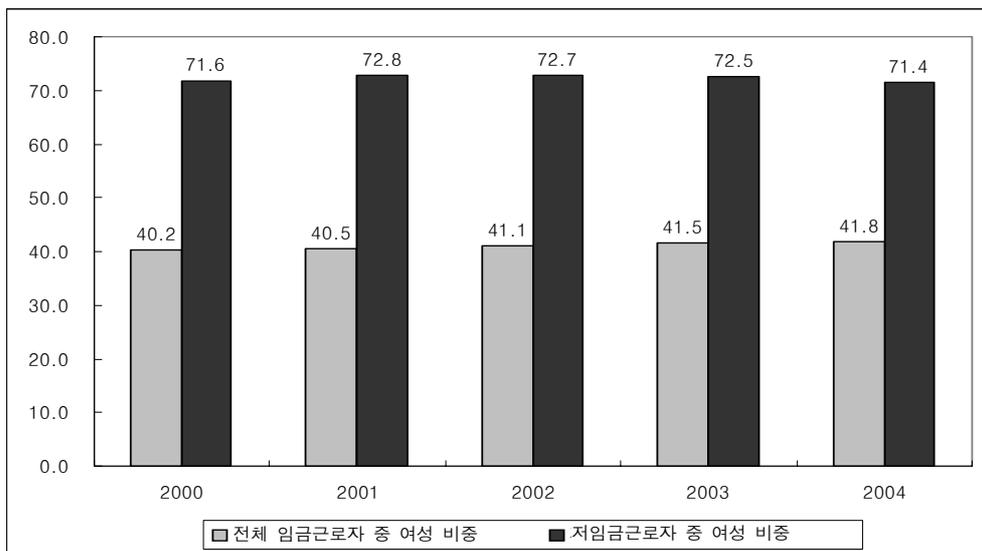
있으며, 남녀 모두 2004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저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경우는 가구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4년 8월 현재 남성은 저임금근로자 1,082천명 중 56.5%인 611천명이 가구주로 나타나며, 여성은 저임금근로자 2,702천명 중 24.7%인 667천명이 가구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도별 저임금근로자 중 가구주 비율은 2000년 이후 남성은 50% 초반대, 여성은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2004년에 남녀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2] 임금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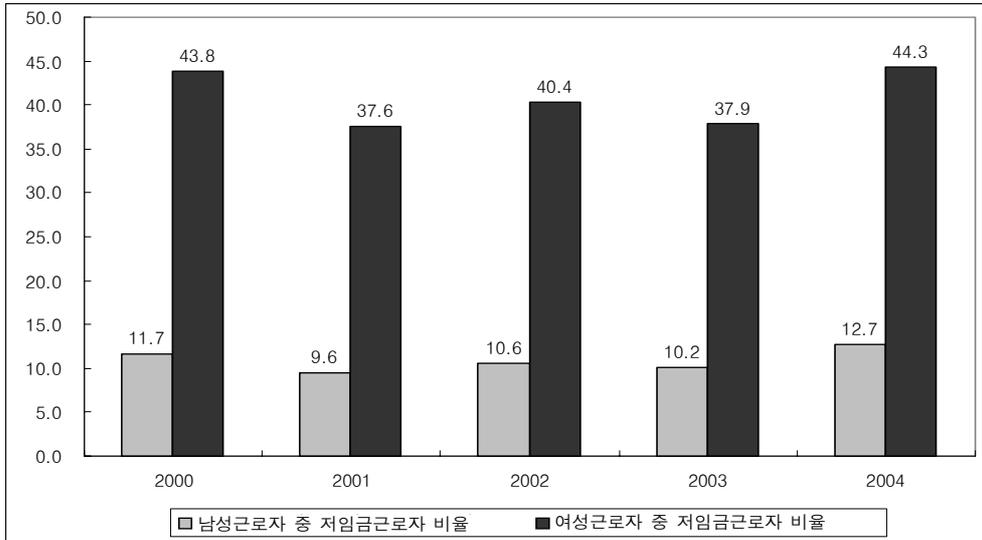
<표 3> 연도별 저임금근로자수 및 비율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성 전체 근로자수	7,896	8,059	8,258	8,283	8,489
남성 저임금근로자수	921	770	877	841	1,082
남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11.7	9.6	10.6	10.2	12.7
여성 전체 근로자수	5,305	5,481	5,772	5,866	6,096
여성 저임금근로자수	2,325	2,060	2,331	2,220	2,702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43.8	37.6	40.4	37.9	44.3

[그림 3] 연도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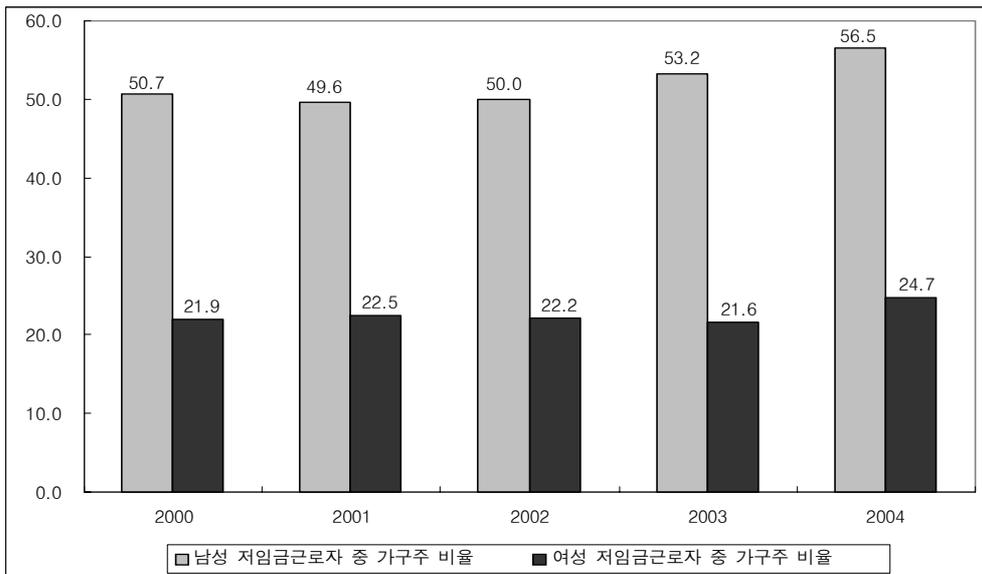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그림 4] 저임금근로자 중 가구주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Ⅲ.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특성과 분포

1.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특성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다수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여성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다양한 인적특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의 결정원인 등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근로형태별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남성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보다 임시 및 일용직에서의 저임금 여성근로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다. 특히 일용직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85.4%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절반이 넘는 63.1%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3개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별 편중현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임시직보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용직 남성근로자는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고임금 산업인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임시직 남성근로자는 건설업보다는 도매 및 소매업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산업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³⁾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청소년층과 고령층에서 높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50대 이상 여성은 절반 이상이 저임금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종사상 지위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여 성	남 성
상용직	16.8	3.0
임시직	52.4	22.7
일용직	85.4	1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 8.

3) 2004년 8월 현재 산업별 월평균 임금은 건설업 1,486천원, 도매 및 소매업 1,259천원, 숙박 및 음식점업 945천원, 개인서비스업 1,279천원 등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예상되는 바대로 남녀 모두 저학력일수록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고학력인 대학원 졸업자라 하더라도 10%가 넘는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어 남성과 대조를 보인다.

〈표 5〉 연령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여 성	남 성
15~19세	79.1	75.3
20~29세	30.1	19.0
30~39세	39.9	2.5
40~49세	49.1	7.0
50~59세	59.6	13.7
60~64세	82.3	41.5
65세 이상	93.5	68.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 8.

〈표 6〉 학력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여 성	남 성
중졸 이하	69.0	31.6
고 졸	48.7	14.4
대 졸	20.9	4.2
대학원졸	14.6	3.8

주: 전문대졸은 대졸에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 8.

혼인상태별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남성은 미혼에서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기혼에서의 비율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전체 남성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이 기혼 30.9%, 미혼 48.9%로 미혼이 높은 반면, 여성은 기혼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66.0%로서 미혼의 47.3%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가 될 개연성이 높게 연유한다.

한편, 근로형태별로는 남녀 모두 시간제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나

〈표 7〉 혼인상태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여 성	남 성
기 혼	49.9	8.7
미 혼	32.0	2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 8.

전일제 근로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저임금근로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에서도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의 미가입자 비율이 남녀 모두 70%를 상회하고 있다.

〈표 8〉 근로형태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여 성	남 성
전일제 근로	37.7	10.7
시간제 근로	88.4	7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 8.

〈표 9〉 각종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

(단위: %)

	전체 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국민연금 미가입자 비율	52.4	31.9	75.0	81.5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	51.0	29.8	73.2	74.5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	58.0	40.6	74.9	8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 8.

2.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분포

다음으로 여성 저임금근로자들이 주로 어느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산업별, 직종별 분포를 분석하여 살펴보겠다.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산업별로 제조업에 가장 많은 23.4%가 분포되어 있으며 도소매업에 16.6%, 숙박 및 음식점업에 16.3%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 3개 산업에 여성 저임금근로자 중 절반이 넘는 56.3%가 분포되어 산업별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체 여성근로자 구성비보다 저임금 여성근로자 구성비가 높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업 및 임업,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는 산업이다.

다음으로 직종별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절반이 넘는 54.5%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뿐만 아니라 직종에서도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직종별 전체 여성근로자와 저임금 여성근로자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직종은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관련직,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난다.

〈표 10〉 산업별 여성 저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

	전체 여성근로자	저임금 여성근로자
전 체	100.0	100.0
농업 및 임업	1.4	3.1
어 업	0.1	0.2
광 업	0.0	0.0
제조업	20.7	23.4
전기·가스 및 수도업	0.2	0.2
건설업	2.2	2.1
도소매업	15.5	16.6
숙박 및 음식점업	13.2	16.3
운수업	1.5	1.0
통신업	1.2	0.7
금융 및 보험업	5.6	1.8
부동산 및 임대업	1.5	1.9
사업서비스업	7.0	7.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	3.5	3.6
교육서비스업	12.6	8.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7	3.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6	1.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7	4.6
가사서비스업	1.7	3.1
국제 및 외국기관	0.1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 8.

〈표 11〉 직종별 여성 저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

	전체 여성근로자	저임금 여성근로자
전 체	100.0	100.0
고위임직원	0.2	0.0
전문가	11.2	3.2
기술공 및 준전문가	8.8	6.4
사무종사자	23.6	13.7
서비스종사자	17.9	22.5
판매종사자	11.4	11.5
농업, 임업, 어업관련 종사자	0.3	0.7
기능원	4.6	5.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2	5.2
단순노무종사자	17.0	3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4. 8.

3.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결정요인

다음으로는 다변량 로짓분석을 통해 다른 요인을 통제한 가운데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로짓모형은 2000~2004년의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 12〉 여성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로짓추정(2000~2004)

	종속변수(저임금근로=1, 비저임금근로=0)	
	추정계수값	S.E
상수항	2.0929**	0.0774
연령1 더미(15~19세)	1.2736**	0.0913
연령3 더미(30~39세)	-0.1490**	0.0473
연령4 더미(40~49세)	-0.2023**	0.0528
연령5 더미(50~59세)	0.0775	0.0658
연령6 더미(60~64세)	0.6770**	0.1083
연령7 더미(65세 이상)	1.4291**	0.1626
학력1 더미(중졸 이하)	0.2610**	0.0436
학력3 더미(초대졸, 대졸)	-0.5165**	0.0458
학력4 더미(대학원졸)	-1.3921**	0.1870
결혼여부(기혼=1, 미혼, 이혼, 사별=0)	0.2608**	0.0380
종사상 지위(상용=1, 임시·일용=0)	-1.5818**	0.0394
근로형태(전일제=1, 시간제=0)	-2.0764**	0.0575
산업1 더미(농업, 임업)	0.6357**	0.1886
산업2 더미(어업)	0.3496	0.7707
산업3 더미(광업)	-0.8329	1.5030
산업5 더미(전기·가스 및 수도업)	-1.3925**	0.4216
산업6 더미(건설업)	-0.2911**	0.1075
산업7 더미(도소매업)	-0.3633**	0.0624
산업8 더미(숙박 및 음식점업)	-0.9044**	0.0669
산업9 더미(운수업)	-0.6484**	0.1454
산업10 더미(통신업)	-0.5475**	0.1686
산업11 더미(금융 및 보험업)	-1.5480**	0.0886
산업12 더미(부동산 및 임대업)	-0.0353	0.1340
산업13 더미(사업서비스업)	-0.2001**	0.0728
산업14 더미(공공행정업)	0.1399	0.0946
산업15 더미(교육서비스업)	0.0274	0.0736
산업16 더미(보건, 사회복지업)	-0.2588**	0.0859
산업17 더미(오락문화서비스업)	-0.4070**	0.1283
산업18 더미(개인서비스업)	-0.0595	0.0869
산업19 더미(가사서비스업)	0.3384**	0.1210
산업20 더미(국제, 외국기관)	-2.8509*	1.7247
직종1 더미(고위임직원)	-11.3441	115.6000
직종2 더미(전문가)	-1.1372**	0.0916
직종3 더미(기술공, 준전문가)	-0.5578**	0.0722
직종5 더미(서비스직)	0.2277**	0.0551
직종6 더미(판매직)	0.0415	0.0610
직종7 더미(농림어업직)	0.9792**	0.4673
직종8 더미(기능원)	-0.0924	0.0747
직종9 더미(장치, 기계조작)	0.3757**	0.0810
직종10 더미(단순노무직)	0.9711**	0.0551
	R^2	0.1874

주: **는 1%,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저임금근로자는 1, 저임금근로자가 아니면 0값을 주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설명변수로써 공급요인으로서 연령계층더미, 학력계층더미, 혼인상태더미 등을 사용하였고 수요 요인으로서 종사상 지위, 근로형태, 산업더미, 직종더미 등을 사용하였다.

로짓분석 결과는 공급측면에서 보면, 연령계층별로 15~19세를 비롯하여 60세 이상의 여성이 20~29세 여성에 비해 저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이 저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수요측면에서는 상용직의 경우 저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간제근로자는 저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농업, 가사서비스업 등에서 저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공공행정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도 저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장치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 등에서 저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농림어업직과 단순노무직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전문가, 기술공, 기능원은 저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로짓분석 결과는 단변수 분석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IV. 맺음말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는 성별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여성 근로자 중 거의 절반이 저임금근로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시·일용직일수록, 청소년 또는 고령층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여성의 경우 기혼일수록, 그리고 시간제근로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아 저임금근로자는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여성 저임금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며,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에 여성 저임금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등 저임금근로자지원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시행시기와 장단점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임금 산업과 직종에서의 차별에 의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각종 차별에 의해 저임금근로자로 편입된 이들을 정확하게 선별하여 시정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에 비해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여성 저임금근로자 규모는 사회적 균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기형적인 모습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여성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nd**